

2014년에는 모든 분들의 동역을 기대합니다.

● 실행위원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동역회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해 귀한 후원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동역회가 안정되고 다양한 사역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역을 돌아보고 새해의 사역 방향을 설정하면서 동역회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역회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스천 학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하기에 응집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정치적이지만, 현실 문제 대응에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해 30년 이상 노력해 온 기독교 세계관 및 학문 연구의 중심기관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활동이 활발해지

면서, 학회 때마다 200여 명의 학자들, 대학원생들,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약하다 하여 우리의 실천성이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우리의 특성이며,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역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강점과 역량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역량에 합당한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향후 논의를 거쳐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동역회의 임무(mission)와 비전을 기술하여 보았습니다.

• 동역회의 임무

- 1)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 학문의 기초 형성
- 2)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 이슈에 대한 비평 및 대안 제시
- 3) 기독교 세계관의 연구, 보급, 확산

• 동역회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연구의 Think Tank

2014년도에는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혼란이 많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루는 중심 개념을 잘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 임원진에 젊은 학자들을 영입하여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2014년도 사역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동역회는 연구부문, 교육부문, 운동부문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마다 본부장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연구부문(장수영 본부장)인 기독교학문연구회는 기독교 학문연구의 중심 학회로서, 국내외 관련 학회와 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의 질적, 양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계관 관련 융합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부문인 세계관 교육본부(추태화 본부장)는 기독교학문 추천도서 및 논문 DB를 구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을 교회학교 교사, 청년부, 목회자, 예술인 등 대상으로 특화시키고,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과 같은 정규과목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세계관 운동 본부(조성표 담당)는 회원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사이버 강좌를 개발하고, 부진한 지부 및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최현일 부실행위원장)은 회원관리 및 재정관리를 체계화하고, 간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며, 후원교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간지인 월드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김승욱 대표이사)에서는 월드뷰를 동역회 임무와 연계하여 학문 분과별로 심도 있는 글들을 생산하고, 매호 시사성 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비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기관 받아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독립운영기관인 CUP(김혜정 대표), CTC(유경상 대표), VIEW(양승훈 원장), CMCA프로덕션(장유진 대표) 등도 도약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VIEW는 지난해 전성민 박사를 전임 교수로 영입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회원 여러분,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에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동역회에 많은 조언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좋은 원고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써(고후 10:5),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물갈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 날(암 5:24)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실행위원장 조성표 드림



조성표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며, 본 동역회 실행위원장이자 대구 성덕교회 장로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역서 및 저서로는 『돈걱정 없는 가정』(CUP),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생활』(이상규, 정동섭, 양은순 공저: CUP),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박정윤 공역: CUP), 『아직도 계속되는 꿈』(6인 공저: CUP), 『완전한 성공』(11인 공역: CUP), 『공회회계』(명경사), 『비영리단체/비정부기구의 전략경영과 기금개발』(예영커뮤니케이션), 『일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FRS 증권회계』(경문사),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10인 공저: 예영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